



여름 휴가철이다.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과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과 바다, 계곡으로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책만큼 좋은 동반자가 또 있을까. 배낭을 꾸릴 때 자칫 짐이 불어 난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여행지에서 서늘한 글맛에 빠지면 오히려 더워도 좋을 것 같다. 책은 완벽한 나만의 섬이며 진정한 하나의 휴식처이다. 불사의 바다에 빠져보자. 책방 여시아문에서 독자 선호도를 고려해 휴가철 배낭에 싸서 넣을만하다고 생각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스테디셀러와 신간을 엄선해 추천했다. <편집자주>

책방 여시아문이 추천한 Best 10

몸은 休~, 정신은 재충전

휴가배낭에 '佛書' 한권쯤은 ...



서암 스님 자취·가르침 정리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자 엮음 시월 / 8천5백원 <소리없는 소리>는 지난 3월 문경 봉암사에서 입적한 서암스님 시자(侍者)들의 기억속에 묻어 두었던 스님의 자취와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다. 서암스님은 서울에 오실때나 지방에 가실 때 꼭 값싼 통일호 열차를 이용했다. 의자가 딱딱해서 잠들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또 혹 빈방에 전등이라도 켜놓은 것을 발견하면 "너희 아버지가 한전 사장이라도 되느냐"며 불호령을 내렸다. 스님의 이런 걸악 정신은 또다시 찾아온 경제회포를 겪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선방풍속·포살·해제 자세히

'선방일기' 지허스님 지음 여시아문 / 5천원 선방은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선방의 속내를 비공개로 함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선방일기>는 결제 수행을 마치고 용맹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사찰에서 스님들이 맡은 개인적인 소임, 선방의 생애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결제 과정을 다뤄온 저자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지허 스님이 털어놓은 선방의 뒷이야기들도 이 책을 읽는 또다른 맛이다.

이책 만큼은 '소유' 하고 싶다

'무소유' 법정스님 지음 범우사 / 6천원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은 법정스님의 수필집을 이렇게 평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갖게 된다는 진리가 바로 스님이 이 책에서 전해주는 무소유의 이치가 아닐까.

악마는 수행자를 두려워한다

'악마, 부처님을 유혹하다' 윤창화 엮음 민족사 / 7천원 악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바로 수행자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악마, 부처님을 유혹하다>는 대장경 아함부 중에서 저자가 항상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처님과 악마가 주고받는 대화 장면을 묶은 것이다. 윤 대표는 "악마는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위협적인 말로 공포를 조성해 부처님과 그 제자들로부터 수행을 포기하도록 하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은 끝내 악마의 유혹과 협박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 주지요."라고 말한다. 주로 한글대장경을 바탕으로 교훈적이거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면들만 모아 원문과 대조해 읽기 쉽게 일화 형식으로 구성해 놓아 재미와 감동이 쏠쏠하다.

참선공부 어째서 행복할까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지음 시공사 / 9천원 무한한 인내를 요하는 공부란게 결코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을텐데 세상에 과연 행복한 공부가 존재할까. 이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곡성 성륜사 조실)은 "참선이 어째서 행복할까하면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무명병(無明病)'에 걸려 있습니다. '무명병'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병입니다."고 설명한다.

영 태생 비구니의 수행여정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한 여성 수행자의 고단했던 수행 여정을 소개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텐진 팜' (50.Tenzin Pahlmo). '수행을 계속하고 가르침을 떠받드는 영예로운 여인'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영국 태생 티베트 비구니다. 그는 24년 동안 인도, 티베트 등지에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특히 그중 12년은 히말라야 설산 등골에서 독거하며 치열하게 수행했다. 공명, 금욕, 고독을 견뎌냈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편견을 극복해 영적 승인이 됐다.

널리 알려진 경구 쉽게 설명

'영어로 읽는 법구경' 담마난다 영역 / 이병두 국역 불교시대사 / 1만8천원 <법구경>은 무엇보다도 내용이 간결하며 아름답고 담백한 시어로 구성되어 있어 나이나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병두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불교포교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담마난다' 스님의 영역본을 다시 번역한 <영어로 읽는 법구경> 역시 집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많아 휴가철 자신을 되돌아보기에 안성마춤인 책이다.

자비·인내·운유·평화 가득

'한걸음 한걸음' 마하 고사난다 지음 / 박용길 옮김 무한 / 7천원 살아있는 세계 3대 생불이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마하 고사난다' 스님의 생활명상 수행이야기다. 그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인내심, 운유와 평화가 흘러 넘친다. 가르침 역시 장황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미는 깊고도 드넓다. 이 책의 핵심은 고난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자비, 평화의 씨앗 또한 알차다는 것이다. 32편의 길지 않은 법문들이 소주제별로 소개돼 있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마음의 평화 얻는 비법 제시

'화(Anger)' 틱낫한 지음 / 최민수 옮김 명진 / 8천9백원 여름철에는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보니 짜증과 화를 자주 내기 십상이다. 베트남 출신의 선사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의 <화:Anger>는 화내기 쉬운 세상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법을 제시한다. '화가 날수록 맑을 삼가라', '용서도 화풀이의 한 방법이다' 등의 구절들은 화가났을 때 마음에 새겨들만한 스님의 화풀이 비법들이다.

꿈 다스리면 삶·수행에 큰 힘

'꿈' 단정자취 지음 / 성진용 옮김 호미 / 8천원 <꿈-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지혜>는 삶과 꿈의 뜻, 꿈 현상의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꿈을 다스려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사는 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궁극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련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이 책은 '꿈을 다스리면 삶과 수행에 큰 힘이 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영원한 대자유인', '가장 행복한 공부', '더 오래된 과학, 마음', etc.

Advertisement for yosiamun.com featuring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원시불교의 연구' and '비구계의 연구' by Shinjang, featuring author photos and book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이제 열 법사의 '살아있는' 금강경 공부교실' by Jeonil, including course details, dates, and location.